신종플루 한풀 꺾이나?

환자 수 급감 … 추석 민족 대이동에도 '플루대란' 없어

광주·전남 새 환자 하루 50→20명 '뚝'

집단 감염 줄고 치사율 독감보다 낮아

10월부터 대유행이 예상됐던 신종플루 환자 증가세가 이달 들어 되레 주춤하고 사망자 발생 빈도도 더뎌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추석 이후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가는 등 맹위를 떨치던 신종플루의 기세가 한풀 꺾인 양상이어서 향후 추세가 주목된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매일 40~50명씩 늘어나던 환자 수가 이달 들어 20여 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환자도 크게 줄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확진 환자가 지난달 말 402명에서 지난 7일 현재 516명으로, 112명이 늘어났으며,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는 1천648명에서 1천841명으로 같은 기간 193명이 늘어났다. 전남도는 환자는 같은 기간 578명에서 617명으로 39명,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는 1천768명에서 1천894명으로 126명이 증가해 광주보다도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에서는 아직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신종플루가 사실상 정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광주시나 동구청 등은 광주김치문화축제나 충장로축제 등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일반시민들의 경계심도 크게 낮아진 분위기다.

또 만성질환자나 노약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치사율이 낮은 신종플루가 지나치게 과대포장돼 공포심을 자극했다는 볼멘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들어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공식집계를 안 할 정도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들의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된데다 치사율이 일반적인 독감에 비해서도 낮아 예상과는 달리 빠르게 유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2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환자 수나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집단감염이 크게 줄어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듯하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연말까지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코스모스 사이 … 벼 수확 한창 11일 코스모스가 활짝 핀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들녘에서 한 농민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뒤숭숭한 전남도청

공직감찰 담당 사무관 뇌물혐의 구속

전남도의 공직감찰 담당 사무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도청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도청 직원들은 공직부정과 토착비리에 대한 정부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상황에서 공무원의 비리를 막아내야 할 담당 사무관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해 하며,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전남도의 공직감찰 담당사무관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1월부터 세무회계 관련 부서에서 계약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가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공직감찰 담당 사무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이 사무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계약담당 업무를 맡고 있을 당시와 관련된 것이어서, 현재 직책인 공직감찰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청 직원들은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공직감찰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해당 사무관 개인 비리를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약업무 전반이나 인사비리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청의 한 직원은 "감사와 관련된 부서의 인사는 다른 부서와 달리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은 격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목욕탕 불 1천만원 피해

11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B목욕탕에서 불이나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5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한 남탕 한증막에서 시작됐다. 화재 당시 여탕 등에 있던 4~5명의 손님은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생후 2개월 영아·64세 남성

신종플루 감염 사망

총 사망자 14명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생후 2개월 여자 영아와 64세 남성 폐암환자가 잇따라 사망했다. 보건당국 조사결과 두사람의 사망원인이 신종플루로 확인되면 신종플루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난다. 30대 이하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채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6일 영남권의 모 의료기관에서 급성심장부전으로 숨진 생후 2개월 여자 영아에 대한 신종플루 검진결과 7일 양성판정이 내려졌다"며 "사망경위와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숨진 영아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추석연휴를 맞아 영남권으로 귀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는 지난달 25일 기침 증세를 보였고 추석연휴 다음날인 5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근염으로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신종플루 검사가 늦게 이뤄져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64세 남성 폐암환자는 지난 7일 기침,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9일 신종플루 환자로 확진된 뒤 10일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신종플루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의심된다.

한편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는 신종 및 계절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이므로 발열과 기침 등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

신종플루 환자용 33곳 분리시험실

광주교육청 수능 대책

광주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대비 수능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33곳 전 시험장에 환자용 분리시험실(66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마다 보건교사와 의사를 상주시키기로 했다. 또 수능 당일 신종플루로 입원중인 수험생을 위해 해당 병원에 시험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예비소집일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초 발열검사를 해 신종플루에 감염된 환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시 교육청은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담양 한과공장 또 화재

20여일만에 … 시설 노후 누전 추정

9일 오후 8시40분께 담양군 창평면 모 한과공장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1천8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날 불은 공장 인근의 군부대 소속 군인이 최초 발견해 신고했으며, 창고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 135㎡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기계 설비와 찹쌀 등 한과 재료 등이 전소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추석 대목을 앞둔 지난달 18일 새벽 4시에도 원인 모를 불이 나 한과를 생산하던 3층 건물이 전소돼 1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배선 등 공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기 누전으로 잇따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장흥서 승용차 추락 5명 부상

영광선 충돌사고 경찰관 사망

지난 10일 오전 8시40분께 장흥군 부산면 부산교에서 김모(41)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3m 아래 자갈밭으로 추락해 운전자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와 부인, 자녀 2명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에 사는 김씨는 이날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친척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밤 10시께 영광군 불갑면 한 도로에서 진도경찰서 소속 장모(33) 순경이 몰던 마티즈 승용차가 5t 화물트럭(운전자 전모·50)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붙으면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장 순경이 차 안에서 질식해 숨졌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투자 손실 만회" 회사 화장품 훔쳐

쌍나팔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수천만원대 화장품을 훔친 20대 회사원 2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1일 김모(26)·이모(26)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다단계업체에 몰래 들어가 동료 김모(27)씨 소유의 여성용 화장품 2천3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대출금 1천400만원을 이 회사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입게 되자 화장품을 몰래 가져가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 김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